



'95 하반기 전자산업 전망

본회 기획과

1. 개황

'95년 전자산업 경기는 '94년에 비해 크게 호조를 보일 전망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사대상 310개사중 하반

기에 경기가 호조라고 보는 업체가 217개사로 70%의 비중을 보인 반면 경기가 악화된다고 보는 업체는 27개사로 8.7%에 불과한데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반기에 호조라고 본 업체 186개사(60%)보다 1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경우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가 더욱 호조를 보일 것으로 응답

한 기업이 41개사(84%)로 상반기중 경기가 호전된다고 본 기업수 42개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하반기에 경기가 악화된다고 보는 대기업은 2개사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하반기 경기가 더욱 호전된다고 보는 기업은 176개사로 67.4%를 차지하여 상반기의 144개사에 비해 높으며 11% 정도 높은 응답을 보

편집자 주) 본고는 본회가 '95년 하반기 전자산업의 경기를 예측, 업계의 경영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전자산업의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코자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20일간) 본회 회원사 31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 분석한 내용이다.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 구분 | | 크게호조 (15%이상) | 대체호조 (6%~15%) | 별변화없음 (5%~5%) | 대체로악화 (-6%~15%) | 크게악화 (-15%이상) |
|------|-----|-----------------|------------------|------------------|--------------------|------------------|
| 전체 | 현재 | 51 | 135 | 94 | 23 | 7 |
| | 하반기 | 63 | 154 | 66 | 20 | 7 |
| 대기업 | 현재 | 22 | 20 | 4 | 2 | 1 |
| | 하반기 | 18 | 23 | 6 | - | 2 |
| 중소기업 | 현재 | 29 | 115 | 90 | 21 | 6 |
| | 하반기 | 45 | 131 | 60 | 20 | 5 |

경기호조 요인

| 구 분 | 조사업체 | | 기업 규모별 | |
|-------------------|------|-------|-----------|------------|
| | 응답수 | 비중(%) | 대기업 | 중소기업 |
| 내수시장의 수요 확대 | 116 | 26.7 | 21(25.6) | 95 (27.0) |
| 신제품개발 등 품질 고급화 | 91 | 21.0 | 16(19.5) | 75 (21.3) |
| 엔화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회복 | 85 | 19.6 | 21(25.6) | 64 (18.2) |
| 신시장개척 등으로 신규수요 창출 | 77 | 17.7 | 139(15.9) | 64 (18.2) |
| 세계경기의 회복 | 36 | 8.3 | 9(11.0) | 27 (7.7) |
| 자동화등으로 인한 생산원가 감소 | 22 | 5.1 | 2(2.4) | 20 (5.7) |
| 기타 | 7 | 1.6 | - | 7 (1.9) |
| 계 | 434 | 100.0 | 82(100.0) | 352(100.0) |

※ 경기가 호조일 것으로 전망한 217개사의 복수응답 결과임.

였으며, 악화된다고 본 기업은 25개사, 8.1%로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호조 요인으로는 내수시장 확대와 엔고의 영향이 경기 호조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내수시장의 수요확대가 116개사로 26.7%, 신제품 개발 등 품질 고급화가 91개사 21.0%, 엔화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회복이 85개사 19.6%, 신시장 개척 등에 의한 신규 수요창출이 77개사 17.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내수시장의 수요 확대(25.6%),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회복(25.6%) 등을 경기 호조의 주요 요인을 본 반면, 중소기업은 내수시장의 수요 확대(27.0%), 신제품 개발 등 품질 고급화(21.3%), 엔고에 따른 수출경쟁력 회복(18.2%)과 신시장 개척 등에 따른 신규수요 창출(18.2%) 등의 순으로 주요 요인을 보았다.

경기 불안요인으로는 원화절상

등에 따른 엔고효과 상쇄, 선진국의 수입규제 및 통상마찰 증가 등이 경기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원화 절상에 따른 엔고효과 상쇄가 14개사로 25.9%, 자사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12개사로 22.2%, 선진국의 수입규제 및 통상마찰 증가가 8개사 14.8%,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따른 수출감소가 8개사 14.8%로 나타났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선진국의 수입규제 및 통상 마찰 강화, 원화 절상 등에 따른 엔

고효과 상쇄를 경기불안 요인으로 본 반면 중소기업은 자사제품의 경쟁력 약화, 원화절상 등에 따른 엔고효과 상쇄 등을 주요 요인으로 보았으며, 후발개도국 추격에 따른 수출감소 또한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외 시장 여건 및 전망

내수시장 전망은 상반기에 비해 호조를 보일 전망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약진이 예상된다.

하반기 내수 경기가 상반기와 비교하여 호조이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90개사, 93.5%로 대체로 하반기 경기를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 중에서 하반기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206개사로 상반기의 173개사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상반기 경기가 작년에 비해 경기가 나쁘다고 응답한 기업이 2개사였으나 하반기에는 상반기보

경기불안 요인

| 구 분 | 조사업체 | | 기업 규모별 | |
|---------------------|------|-------|----------|-----------|
| | 응답수 | 비중(%) | 대기업 | 중소기업 |
| 원화절상 등에 따른 엔고효과 상쇄 | 14 | 25.9 | 2 (50.0) | 12 (24.0) |
| 자사제품의 경쟁력 약화 | 12 | 22.2 | | 12 (24.0) |
| 선진국의 수입규제 및 통상마찰 증가 | 8 | 14.8 | 2 (50.0) | 6 (12.0) |
|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따른 수출감소 | 8 | 14.8 | | 8 (16.0) |
| 국내 경기의 침체 | 7 | 13.0 | | 7 (14.0) |
| 세계 경기의 침체 | 1 | 1.9 | | 1 (2.0) |
| 기 타 | 4 | 7.4 | | 4 (8.0) |
| 계 | 54 | 100.0 | 4(100.0) | 50(100.0) |

※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27개사의 복수응답 결과임.

내수시장 전망

| 구 분 | 현 재 경 기 | | | 하반기경기 | | |
|--------|---------|-----|------|-------|-----|------|
| | 계 | 대기업 | 중소기업 | 계 | 대기업 | 중소기업 |
| 크게 호조 | 52 | 19 | 33 | 52 | 13 | 39 |
| 대체로 호조 | 121 | 19 | 102 | 154 | 26 | 128 |
| 별변화 없음 | 115 | 9 | 106 | 84 | 10 | 74 |
| 대체로 악화 | 18 | 2 | 16 | 17 | - | 17 |
| 크게 악화 | 4 | - | 4 | 3 | - | 3 |
| 계 | 310 | 49 | 261 | 310 | 49 | 261 |

해외시장 전망

| 구 분 | 현 재 경 기 | | | 하반기경기 | | |
|--------|---------|-----|------|-------|-----|------|
| | 계 | 대기업 | 중소기업 | 계 | 대기업 | 중소기업 |
| 크게 호조 | 35 | 18 | 17 | 47 | 16 | 31 |
| 대체로 호조 | 96 | 20 | 76 | 113 | 22 | 91 |
| 별변화 없음 | 95 | 8 | 87 | 67 | 8 | 59 |
| 대체로 악화 | 21 | 3 | 18 | 18 | 3 | 15 |
| 크게 악화 | 5 | - | 5 | 7 | - | 7 |
| 계 | 252 | 49 | 203 | 252 | 49 | 203 |

※ 중소기업에 있어 해외 수출이 없는 경우 미응답

다 나쁘다고 응답한 기업이 없어 하반기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도 하반기 경기가 호조라고 응답한 기업은 167개사로 상반기의 135개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시장 전망을 보면 상반기에 비해 호조가 예상된다. 이는 하반기 해외경기가 호조 내지는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227개사로 상반기와 비슷하였다. 이중 호전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60개사로 상반기의 131개사에 비해 29개사가 늘어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상반기와 별다른 변화는 없으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호조라고 응답한 기업이 122개사로 상반기에 비해 29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전자산업 수급 전망

가. 개황

국내 전자산업 생산은 '94년 37조 8,593억원에서 '95년 48조 9,180억원으로 29.2% 증가될 전망이다.

이는 금년도 목표 17.5% 대비 11.7%, 작년도의 22.7% 대비 6.5% 향상된 것이며 금년도 GDP 성장목표 8.1% 대비 21.1%가 높아 국내 타산업보다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수출은 419억불로 전년대비 35.6% 증가('94년 30.4%)할 것으로 예상되며 엔고에 따른 C-TV, MWO 등 가전제품과 휴대용 전화기 등의 호조가 예상된다.

또한 연초 하반기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 반도체 경기의 지속이 예측되고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수요 확대와 러시아 등 신규시장 개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판은 10조 997억원으로 20.3% 증가('94년 13.7%)할 것이며 정보화 확산 및 멀티미디어 제품의 등장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지역별 품목 동향

| 지역별 | 호조예상 품목 | 부진예상 품목 |
|-------------------|-------------------------------------|-----------------------|
| 미 주 | 반도체, 휴대용 전화기, CTV, MWO, 자기테이프 | PC, VCR, 음향기기, 유선통신기기 |
| 유 럽 | 반도체, PC 및 주변기기, 유선전화기, Fax, CRT | VCR, CTV, MWO, PCB |
| 일 본 | VCR, 음향기기 등 가전기기, 반도체, CRT, 컴퓨터주변기기 | PC, 유선통신기기 |
| 기 타 (동남아, 중남미) | 반도체, CRT, MWO, CTV, 자기테이프 | 유선전화기, 냉장고 |

전자산업 하반기 전망

|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95전망 | 증감율 (%) | | | |
|----|------|--------|--------|---------|------|-------|------|
| | | | | 상반기 | 하반기 | '95전망 | |
| 생산 | 10억원 | 21,985 | 26,933 | 48,918 | 27.4 | 30.7 | 29.2 |
| 수출 | 백만불 | 18,889 | 23,063 | 41,952 | 37.2 | 34.4 | 35.6 |
| 수입 | 백만불 | 11,781 | 15,352 | 27,133 | 44.6 | 45.9 | 45.3 |
| 시판 | 10억원 | 4,660 | 6,337 | 10,997 | 18.2 | 24.4 | 20.3 |

주) 적용 환율 : 760원/1 \$

와 가전제품의 고급화에 더불어 반도체의 내수 판매가 급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271억불로 45.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전자부품과 산업용기기의 수입이 증가될 것이며 CTV, 세탁기 등 가정용 전기용품의 수입이 증가될 것에 기인한다.

나. 부문별 전망

① 산업용기기

산업용기기의 생산은 9조 5,8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1% 증가가 예상된다.

시판은 작년 증가율에 못미칠 전망이다. 수출은 엔고 등으로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수출은 69억 9,400만불로 20.5%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계 컴퓨터 시장의 호황으로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가 수출 호조와 엔고에 따른 가격경쟁력 회복과 세계적인 이동통신기기의 수요 증가로 휴대용 전화를 비롯한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크게 증가될 것에 기인한다.

시판은 3조 6,330억원으로 17.0% 증가('94년은 18.7%)로 경기 활성화에 따른 기업의 정보화

투자 증가가 예상되며 멀티미디어 PC를 중심으로 내수확대, CATV 방송 실시에 따른 관련 장비의 수요 확대, 휴대폰, 무선호출기 등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수요증가에 기인된다.

② 가정용기기

가정용기기는 생산이 10조 7,450억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80억 8,600만불로 10.5%가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엔고에 따른 일본 업체들의 OEM 증가와 가격 경쟁력 회복, 기술개발에 따른 품질 향상과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 지역별로는 미국, 일본, 동남아 오더 증가 전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판은 4조 2,920억원으로 5.5% 증가('94년은 7.8%)가 예상돼 보급률 포화, 수입 증가 등으로 수요 정체가 예상되며 가전제품 가격인하 조치와 첨단제품의 수요 증가에 기대가 된다

또한 보급형 제품과 고기능 첨단제품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③ 반도체

반도체는 생산이 18조 5,360억원으로 전년대비 55.9% 증가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 반도체 3사의 16M DRAM 생산 확대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제휴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은 203억 9,100만불로 57.0% 증가되며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 및 메모리 가격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판은 1조 1,130억원으로 15.1% 증가되어 멀티미디어 PC, 펜티엄 PC 등 고급 기종이 주력제품으로 부상하고 32비트 OS, 소프트웨어의 고기능화에 따른 메모

'95하반기 부문별 전자산업 전망

| 구분 | 생산(10억원) | | | 수출(백만불) | | | 시판(10억원) | | |
|-------|------------------|------------------|------------------|------------------|------------------|------------------|-----------------|-----------------|------------------|
| | 상반기 | 하반기 | '95전망 | 상반기 | 하반기 | '95전망 | 상반기 | 하반기 | '95전망 |
| 전자산업 | 21,985 (27.4) | 26,933 (30.7) | 48,918 (29.2) | 18,889 (37.2) | 23,063 (34.4) | 41,952 (35.6) | 4,660 (18.2) | 6,337 (24.4) | 10,997 (20.3) |
| 산업용기기 | 4,146 (21.9) | 5,434 (19.4) | 9,580 (20.1) | 3,364 (28.1) | 3,930 (23.6) | 6,994 (20.5) | 1,397 (13.7) | 2,236 (18.5) | 3,633 (17.0) |
| 가정용기기 | 5,364 (4.7) | 5,381 (7.1) | 10,745 (5.9) | 3,798 (10.3) | 4,288 (10.7) | 8,086 (10.5) | 1,980 (4.1) | 2,312 (6.7) | 4,292 (5.5) |
| 반도체 | 7,723 (55.7) | 10,813 (56.0) | 18,536 (55.9) | 8,817 (61.5) | 11,574 (53.8) | 20,391 (57.0) | 506 (97.7) | 607 (221.2) | 1,113 (150.1) |
| 전자부품 | 4,752 (25.9) | 5,305 (29.6) | 10,057 (27.8) | 2,910 (29.3) | 3,271 (26.1) | 6,181 (27.6) | 777 (17.5) | 1,182 (37.3) | 1,959 (28.7) |

리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④ 전자부품

전자부품은 생산이 10조 570 억원으로 27.8%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칩화, 모듈화된 부품 수

요 증가에 기인된다. 수출은 61 억 8,100만불로 27.6% 증가가 예상되며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수요 증가에 일본의 주문 가세가 기대된다. 시판은 1조 9,590억원

으로 28.7%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 전자산업 호조와 CATV 관련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멀티산업 육성 97년 1조 2000억 투입

정부는 오는 97년까지 1조2천 1백4억원을 투입해 관련업체들의 첨단멀티미디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멀티미디어 행정서비스를 개발해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멀티미디어 전시관과 중소기업 전문빌딩 등도 설립하며 대도시 및 과학단지 등에서 각종 멀티미디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를 세계 제일의 멀티미디어 관련 생산기술 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내용의 「멀티미디어산업 육성 계획(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 육성계획에 따르면 정통부는 멀티미디어 산업발전방안이나 애로사항기구로 「멀티미디어산업발

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멀티미디어산업 육성계획 및 시행, 조정업무 등을 담당할 「멀티미디어산업지원위원회」를 자체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지역에 30만~50만평 규모의 첨단 정보통신 기반을 갖춘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이르면 내년초부터 만들어 영상·게임·SW·타이틀·데이터베이스 등을 개발하는 업체들을 장기 저리로 입주시키고, 사무공간·컴퓨터시설·SW를 임대해 멀티미디어모험기업과 신세대 기업군을 발굴할 중소기업 전문빌딩도 건립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단지조성과 관련, 내년부터 97년까지 1천4백억원을 투입, 1단계로 멀티미디어 개발업체와 통신서비스·단말기 및 부

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정 면적을 분양할 계획이며, 98~99년에는 6백억원을 들여 2단계로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인력수급을 위해 정보통신대학원과 중소기업 빌딩 및 국가정보센터도 이 단지 안에 설립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정통부 안에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97년까지 관련기술 개발분야에 3천9백45억원을, 창조기초기술 개발에 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이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